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36득점 1실점…광주 봉산중 소프트볼 4연패

〈3경기 성적표〉

결승전 서울 신정여중 11-0 대파 '콜드승'

MVP 이경민, 그라운드 홈런에 3승 投

2014 인천전국소년체전

'공격은 길게, 수비는 짧게'

광주 봉산중(교장 김현숙)이 야구의 정석을 보여주며, 전국소년체전 소프트볼 4연패를 달성했다.

봉산중은 26일 인천 송도LNG제4지구야구장에서 열린 제43회 전국소년체전 소프트볼 여중부 결승전에서 서울 신정여중을 11-0으로 대파, 5회 콜드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봉산중은 소년체전 4연패의 금자탑을 쌓았다.

봉산중은 이번 대회에서 전 경기 콜드승을 기록하는 등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다.

1회전에서는 대전 신기중을 3회에 15-0으로 꺾었고, 2회전에서는 대전 괴정중을 만나 4회 10-1로 완파했다.

세 경기에서 총 36점을 뽑아내는 괴력을 발휘했다. 실점은 1점으로 수비도 안정됐다.

대회 MVP에는 투수 겸 톱타자인 이경민이 선정됐다. 그는 결승전에서 첫회 첫타선에 올라 그라운드 홈런을 기록하는 등 맹타를 휘둘렀다. 또 빼어난 투구를 선보이며 상대 3개팀을 1점으로 틀어막았다. 김이중 감독의 작전이 주효했다. 주장이자 중심타선인 이경민을 이번 대회에서는 1번 톱타자로 기용, 상대팀의 허를 찌른 것이다.

김 감독은 "앞서 열린 평화통일배와 회장기 대회에서 4번 타자인 경민이를 상대팀들이 고의사구로 흘려보내 제 역할을 못했다"며 "이번 대회에서는 4번에서 1번으로 바꿔 거를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감독은 4연패 달성에 대해 "기초체력을 튼튼히 다진 데 비결이 있다"고 밝혔다.

봉산중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지난 1월 체력담당 트레이너로 육상 국가대표 출신의 오경애 선수를 영입했다. 운동의 기본인 기초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훈련도 특별했다. 고교 전국 최강팀인 명진고와 연계 훈련을 한 것이다. 고등학생과 연습을 함께 하다보니 힘은 더 들지만 실력은 배로 향상됐다. 전문가들은 봉산중의 실력을 고교 수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봉산중은 여중 소프트볼 명문이다. 지난 2008년 창단해 소년체전에서 7차례 출전해 6번 우승했다.

봉산중은 이날 금의환향해 내년 소년체전 5연패를 목표로 다시 담금질을 시작했다.

/인천=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6일 인천 정화여고체육관에서 열린 펜싱 여중부 사브르 경기에서 화순제일중이 서울 선발을 상대로 선전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광주 수영'의 재발견

화정남초 오하늬 2관왕 등 선수단 금메달 16개중 5개 획득

제43회 전국소년체전의 가장 큰 수확은 광주 수영의 재발견이다.

대회 사흘째인 26일까지 광주 선수단이 획득한 금메달 18개 중 5개가 수영에서 나왔다. 예년의 2~3개에서 2배가 늘어났다. 특히, 이들은 2019년 광주에서 펼쳐지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주역이 될 차세대 기대주들이어서 세계수영대회 성공 예감과 미래를 밝히고 있다.

광주는 26일 수영에서 금메달을 1개 추가했다.

남상아(광주체육중2)는 이날 인천 박태환수영장에서 열린 여중 평영 200m 결승에서 2분33초23으로 우승, 대회 2관왕에 올랐다. 그는 지난 24일 평영 100m에서 1분12초62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남상아의 선전은 평영 선수로서 타고난 신체조건과 집중력에서 발휘됐다. 그는 손발이 크다. 160㎝의 키에 신발을 250㎜를 신는다. 손발이 크면 물을 많이 움켜쥘 수 있어 스피드를 낼 수 있다. 또 발목이 유연해 킥(발차기)이 뛰어나다.

특히, 성격이 밝아 슬럼프에 빠지더라도 빨리 헤어나올 수 있고, 집중력도 좋다. 상아는 수영선수인 언니(남상지·광주체육고1)의 영향으로 초등학교 2학년 때 수영을 시작했다. 남동생(남상훈·효덕초2)도 누나들을 따라 수영을 하고 있다.

상아는 "금메달을 2개나 따 너무 기쁘다"며 "언니가 가장 좋아하고 격려해줬다"고 말했다.

이지현 광주체육중 수영 감독은 "상아는 손발이 커 평영선수로 최적의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성격이 밝아 혼나더라도 금방 털고 일어나 집중력을 발휘하는 게 큰 강점이다"고 기대했다.

화정남초 오하늬

광주는 다이빙에서 3개의 금맥이 터졌다.

오하늬(화정남초6)가 플랫폼다이빙과 스프링보오드3m에서 각각 242.50점과 231.05점을 받아 2관왕에 올랐다.

박정인(광주체육중2)은 여중 플랫폼다이빙에서 310.65점을 획득,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스프링보오드3m에서는 299.80점으로 동메달을 추가했다. 이같은 다이빙의 성장은 초·중·고가 연계된 훈련의 결과라는 평가다. 광주체육고 수영 코치가 초·중학생까지 지도하는 헌신성을 보여준 것이다.

은메달도 3개나 수확했다.

박주영(효덕초6)은 자유형 100m와 200m에 출전해 각각 1분00초12와 2분11초12로 골인, 2개의 은빛 물살을 갈랐다. 접영 200m에서는 김민화(전남중1)가 2분14초96으로 은메달을 추가했다.

임효택 광주수영협회 회장은 "좋은 성적은 좋은 선수와 좋은 지도자의 합작품"이라고 말했다.

/인천=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스포츠 꿈나무들 메달행진

광주, 금5·은1·동15…전남, 금3·은2·동11개 수확

광주·전남 스포츠 꿈나무들의 메달행진이 계속됐다.

인천 일대에서 열리고는 있는 제 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3일째인 26일(오후 6시 현재) 광주가 금 5, 은 1, 동 15개를 추가했다. 전남은 3개의 금메달과 함께 은 2, 동 11개를 수확했다.

광주는 씨름에서 2개의 금메달을 더했다.

광주중의 김태하와 유정훈이 각각 남중부 용사급과 역사급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관왕도 나왔다. 여중부 평영 200m에 출전한 남상아(광주체중)는 2분33초23에 결승선을 찍으며 평영 100m에 이어 다시 한번 시상대 정상에 섰다.

소프트볼 중등부 최강인 봉산중은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4연패의 위업을 이뤘다.

금빛 발차기도 있었다. 상무중 서호진이 남중부 라이트 헤비급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전남도 씨름, 수영,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추가했다. 동광양중의 이희현이 씨름 경장급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수영 여초부의 오주휴(광양중마초)는 접영 50m에서 29초41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가져왔다. 태권도 남중부 박근동(광양중도중)도 헤비급 정상에 오르며 전남의 금메달리스트 대열에 합류했다. /인천=박정욱기자 jwpark@